졌잘싸…페퍼스, 선두 도로공사와 '한 끗 승부'

JINAIR V-LEAGUE 2025~2026

1-3 패배…국내 선수들 득점 가세
이원정 복귀 후 존재감·조이 활약

한국 도로공사 타나차의 공격에 시마무라와 이원정이 블로킹을 시도하고 있다. 페퍼스는 지난 17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로공사전에서 세트스코어 1-3(25-23 19-25 19-25 24-26)으로 패했다. 〈KOVO 제공〉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선두 한국도로공사에 고개를 숙였지만 코트 위에서 확인한 희망은 분명했다.

부상 여파로 코트를 비웠던 세터 이원정이 복귀 후 존재감을 드러낸 가운데, 국내 선수들도 고른 득점으로 끝까지 승부를 물고 늘어졌다.

페퍼스는 17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1-3(25-23 19-25 19-25 24-26)으로 역전패했다.

지난 정관장전 승리로 잡았던 분위기를 연승으로 잇지는 못했고, 올 시즌 도로공사와의 전적도 1승3패로 기울었다.

출발은 페퍼스가 좋았다.

1세트 초반부터 중앙 속공으로 리듬을 만들었고, 조이가 높은 결정력을 유지하며 25-23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조이는 1세트에서 무려 78.57%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보였다.

시마무라와 하혜진이 속공으로 공격 템포를 살렸고 박정아의 블로킹도 힘을 보태며 선두를 상대로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2세트부터 흐름이 기울기 시작했다. 페퍼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트 리시브효율은 8.33%까지 떨어졌다.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도로공사의 서브와 중앙 전개에 주도권을 내줬다. 3세트 역시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4세트, 페퍼스는 추격을 시도했지만 '한 끗'이 부족했다.

페퍼스는 초반 4-8까지 끌려가던 흐름에서 수비 집중력으로 버텼고, 이원정의 경기 운영과 조이의 득점으로 반격에 불을 붙였다.

결국 24-24 듀스를 만들며 도로공사를 몰아세웠지만 마지막 승부처에서 범실로 한 점이 모자랐고, 결국 24-26으로 경기를 내줬다.

페퍼스의 경기 결과는 패배였지만 내용은 남았다.

조이는 양 팀 최다 35점을 올리며 해결사 역할을 이어갔고, 박은서(8점)·박정아(7점)·시마무라(7점)·이원정(7점)·하혜진(6점) 등 국내 선수들도 고르게 득점에 가세했다.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분산되는 흐름이 살아나면서, 듀스 접전 끝 패배에도 남은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세터가 만든 득점이 눈에 띄었다. 이원정은 흔들리는 리시브 속에서도 공격 선택지를 넓혀 경기의 결을 바꿨다. 이원정은 페이스 페인트로 공격 3점, 블로킹 3점, 서브로 1득점 총 7득점을 쌓아 올리며 도로공사의 블로킹 시선을 분산시켰고 조이에게만 쏠리기 쉬운 공격 흐름에 숨통을 틔웠다.

장소연 감독은 "중반부터 리시브에서 어려움이 생기며 흐름을 넘겨주는 느낌이었다"며 "한 끗 차이인 것 같다. 1세트 이기고 4세트에서의 한 끗 차이로 다음 5세트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승부처에서 운영이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1위 도로공사를 상대로 하고자 하는 좋은 경기를 했고, 결과가 아쉽지만 충분히 잘 싸워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터 이원정에 대해서는 "시즌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맞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공격수와 호흡을 점점 잘 맞춰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끗 차이'가 반복되는 승부처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후반기 반등의 관건임이 분명하다.

한편, 페퍼스는 21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맞붙는다.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일정에서 다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한국 남자탁구 부활 신호탄…장우진·조대성 WTT 우승

중국에 3-2 역전승

조대성(왼쪽)과 장우진이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T 스타 컨텐더 도하 2026 남자복식 결승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WTT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 남자 탁구 간판 장우진(세아)과 대들보 조대성(화성도시공사) 듀오가 올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에서 만리장성을 허물고 새해 첫 우승에 성공했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T 스타 컨텐더 도하 2026 남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황유정-웬루이보 조에 풀게임 대결 끝에 3-2(5-11 11-8 11-6 5-11 11-9) 역전승을 낚았다.

이로써 장우진-조대성 조는 올해 WTT 시리즈 두 번째 대회 만에 한국 선수로는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장우진-조대성 콤비가 WTT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22년 6월 컨텐더 자그레브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스타 컨텐더는 WTT 시리즈에서 그랜드 스매시, 챔피언스 다음으로 높은 등급의 대회로 총상금 30만달러가 걸려 있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이번 대회 본선 1회전(16강)에서 세계 2위 린스둥과 세계 7위 량징쿤이 호흡을 맞춘 중국 조를 3-2로 꺾는 '테이블 반란'을 일으킨 데 이어 결승에서도 중국 듀오를 꺾고 우승해 의미가 컸다.

장-조 조는 황유정-웬루이보 조를 맞아 첫 게임을 5-11로 손쉽게 넘겨주며 출발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2게임 들어 왼손 조대성의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장우진 특유의 드라이브 공세가 살아나면서 11-8로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게임을 잡고 4게임을 잃어 승부는 최종 5게임에 접어들었다.

장-조 조는 5게임에도 공방을 이어갔지만, 11-9로 이기면서 작년 12월 WTT 왕중왕전에서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한국 탁구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봅슬레이 2인승 김진수팀, 월드컵 대회 4위

동계 올림픽 메달 가능성 확인

봅슬레이 남자 2인승 김진수(강원도청) 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4위에 올랐다.

파일럿 김진수, 브레이크맨 김형근(강원도청)으로 꾸려진 김진수 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마지막 7차 대회 봅슬레이 남자 2인승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51초11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썰매 최강' 독일 팀들이 1~3위를 휩쓸었다.

요하네스 로크너 팀이 김진수 팀보다 0.98초 빠른 기록으로 우승했고, 아담 아무르,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 팀이 각각 2, 3위에 자리했다.

김진수 팀은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올림픽 트랙'에서 열린 1차 대회를 포함해 총 4차례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스노보드' 최가온, 월드컵 시즌 3번째 금빛 비행

하프파이프 92.50점 압도적 1위
클로이 김과 올림픽 빅매치 예고

최가온(세화여고·사진)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시즌 3승째를 따냈다.

최가온은 18일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25-20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2.5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미국 월드컵 우승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월드컵 타이틀을 따냈다.

이번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은 총 7차례 열리며 락스 월드컵은 5번째 대회였다.

최가온은 2025-2026시즌 자신이 출전한 월드컵에서는 모두 정상에 올랐다.

이틀 전 예선에서도 96.5점을 획득, 1위로 결선에 오른 최가온은 1차 시기 21.25점으로 부진했으나 2차 시기에서 92.50점을 받았다.

2위 구도 리세(일본)의 82.75점을 10점 가까이 앞선 압도적인 우승이다.

최가온은 2차 시기에서 스위치백세븐(주행 반대 방향으로 떠올라 2바퀴 회전), 백사이드나인(등지고 공중에 떠올라 2.5바퀴 회전), 프런트사이드텐(주행 방향으로 공중에 떠올라 3바퀴 회전) 등의 기술을 선보이며 고득점에 성공했다.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에 열리는 마지막 월드컵을 우승으로 장식한 최가온은 올림픽 메달 획득 전망도 밝게 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월드컵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우승해 너무 기쁘다"며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고, 자신감도 더 차오르고 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가온은 락스 월드컵과 특별한 인연도 있다.

2024년 이 대회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 1년 정도 재활에 매달려야 했고, 지난해 이 대회를 통해 복귀해 동메달을 수확했다.

세 번째 락스 월드컵 도전에서 기어이 시상대 맨 위에 오른 최가온은 올해 올림픽에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과 금메달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2000년생으로 최가온(2008년생)보다 8살 많은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연달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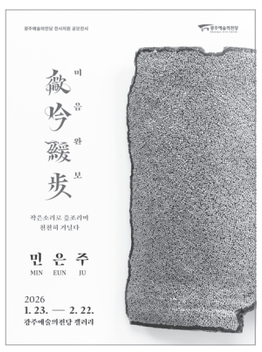
클로이 김은 최근 어깨 부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로이 김이 올해 동계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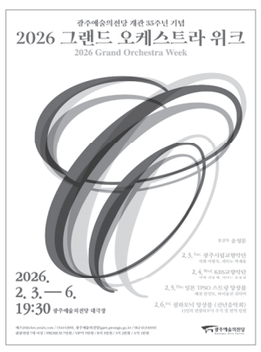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음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